

KOSSDA 제14회 데이터 페어 개최

혼합연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사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KOSSDA)는 지난 2월 3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혼합연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사이'를 주제로 제14회 KOSSDA 데이터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치러졌으며 코로나로 익숙해진 온라인 참여와 함께 현장 참여가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번 데이터 페어 주제는 '혼합연구'로 혼합연구의 실재와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설계, 자료수집, 분석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연구자가 혼합연구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조건과 논의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혼합연구'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YouTube 평균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가 275명을 기록했으며 현장 참여자도 40여 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 페어는 사전신청자 747명, 최대 동시 시청자 수 371명, 생중계 총조회 수 약 1,200회, 현재(2/28)까지 동영상 조회수 15,784회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1. 발표: 혼합연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사이

첫 번째 발표에서는 변기용 교수(고려대 교육학과)가 실용적 질적 연구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혼합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의 혼합연구 방법론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발표했다. 변기용 교수는 연구방법론에서 이분법적 패러다임 사고의 문제점, 혼합연구에 대한 기존 관점과 양적/질적 연구의 화학적 결합 가능성, 기본 혼합연구 수행방식의 한계와 다원화 방법 등을 다루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경숙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인구, 생애 연구에서 혼/융합 방법의 모색>에서 왜 혼·융합적 방법이 중요한지와 인구, 생애 연구에서 어떻게 혼·융합적 방법을 실행했는가를 발표했다. 박경숙 교수는 생애 연구라는 것이 인구라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집합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부터 방법론적인 고민이 출발했음을 밝혔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박형민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에서의 혼합연구 활용>을 발표했다. 박형민 연구위원은 정책개발을 지향하는 국책 연구의 관점에서 혼합연구의 실재와 가능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의 연구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혼합연구를 수행하는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은영 교수(서울대 간호학과)는 <의료분야에서의 혼합연구 활용>을 발표했다.

서은영 교수는 발표에서 간호를 포함한 의료분야가 (타 분야와 비교하여) 혼합연구 논의와 활용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와 조건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분야에서의 혼합연구 정의와 방법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2. 토의

'혼합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는 발표자 네 명과 함께 토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는 사전 신청을 통한 사전질문과 현장 참석자들의 질문, 당일 YouTube 실시간 채팅을 통해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발표자 맞춤형의 질문을 던졌다. 주요 질문을 살펴보면, 변기용 교수는 혼합연구, 융합연구, 통합연구 등의 용어 구분에 대한 질문과 혼합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여전히 질적/양적 연구의 경계를 고수하고 있는 학문 공동체(학교, 교수, 학술지를 포함)의 태도와 이에 대한 연구자의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질문받았다. 박경숙 교수는 인구와 생애라는 주제가 어떻게 혼합 가능한지에 대한 것과 이 주제는 높은 수준의 양적 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수준의 질적 연구를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과 논의를 이어갔다. 박형민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보고서를 보면 연구자마다 혼합연구방식의 차이가 커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지와 혼합연구 방법론을 언제 어떻게 정책연구에 써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논의를 이어갔다. 서은영 교수는 의료분야 혼합연구의 경우 환자 민감정보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와 더불어, 실제 혼합연구 수행에서 만날 수 있는 질문들도 논의되었는데 박경숙, 변기용 교수는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에 있어 양적연구는 원래의 계획대로 수행되는 반면 질적연구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변화되면서 명확해지는 특성이 있는 데 이런 차이점이 어떻게 혼합연구에서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논의를 이어갔다. 서은영 교수는 의료계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심층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지켜야 하는 연구윤리나 민감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박형민 연구위원은 혼합 연구시(범죄연구) 공식과 연구대상자(범죄자의 경우)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연구자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3. 마치며

<14회 데이터 페어: 혼합연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사이는 13회에 이어 YouTube 생중계와 더불어 오프라인으로도 행사를 진행하여 실로 오랜만의 대면으로 하는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혼합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은 방학 기간, 금요일 오후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행사장에 찾아오게 했다. 한편 데이터 페어 영상은 양질의 콘텐츠를 더욱 많이 보급하고자 발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KOSSDA YouTube 공식채널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14회 데이터 페어는 총조회 수가 18,000회(3월 현재)를 돌파하여 1-14회 데이터 페어 영상 중 역대 최고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렇듯 이번 데이터 페어는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모두 극대화되었던 뜻깊은 행사였다. KOSSDA는 앞으로도 연구데이터의 생산-이용,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론을 결합한 데이터 페어를 선보일 것이며 페어에서의 질문과 성찰이 새로운 연구와 연구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